

단색화의 세계, 세상 스트레스 빨아들이는 듯

October 4, 2021 | 손영옥 기자

Page 1 of 1

단색화의 세계, 세상 스트레스 빨아들이는 듯



박서보 작, '묘법 No. 140410', 2014, 캔버스에 한지와 복합매체, 130×200cm, 국제갤러리 제공

국제갤러리 박서보 개인전

초봄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미는 새싹 같은 연두, 가을 산의 불타는 듯한 단풍의 붉은색, 부끄러운 듯 화사한 진달래 같은 분홍... 전시장에는 원색의 향연이 펼쳐졌다. 명품을 선호하는 멋쟁이 원로 작가 박서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흰색 슈트에 분홍색 셔츠를 받쳐 입고 나타났다.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전시된 작품을 설명할 때는 말을 끊어야 할 정도로 열의가 넘쳤다. 작가는 “세상은 스트레스의 병동이다. 20세기의 그림은 관람자에게 공격적이었다. 21세기의 미술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치유의 미술이 되어야 한다”며 “자연의 색채를 내 화면에 유인해서, 그 색채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색채를 쓰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작품도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단색화로 불린다. 단색화는 70년대부터 일련의 작가들 사이에 집단적으로 나타난 추상화 경향이다. 흰색 회색 등 무채색과 중성색을 주조로 했기에 단색화로 불린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박서보 작가의 경우 캔버스에 젯소를 바르고 연필을 반복적으로 긁는 ‘묘법’ 시리즈로 유명하다. 70년대 초기 묘법을 선보인 이래 지속적으로 이를 변주해오고 있다. 자신의 아이

자연은 원초적 자연뿐 아니라 인공의 재자연도 포함된다. 야간 조명이 비치는 한강 마포대교에서 영감을 얻은

가 네모 칸이 있는 공책에 연필로 뭔가를 쓰다가 잘 안 되자 마구 휘갈기는 걸 보고 착안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원색을 쓰는 색채 묘법으로 달라졌다. 연필 묘법에선 캔버스에 연필을 사용해 연필로 드로잉하듯이 선을 긁는다. 색채 묘법에선 한지를 사용하는데, 두 달 이상 충분히 불린 한지를 세 겹 캔버스 위에 붙이고 연필을 도구처럼 사용해 골을 내듯이 민다. 그러면 젖은 한지가 좌우로 밀리면서 눈두렁 같은 골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물기를 말린 후 스스로 경험한 자연경관을 상징하는 색을 덧입힌다. 결과물인 색채 묘법에는 정적인 고요함과 리듬감 있는 활력이 공존하며 감상자를 어루만진다. 작가는 “스트레스를 빨아들이는 흡인지 같은 게 내 작품”이라고 말했다. 31일까지.